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장자	소 속	평등·인력정책 연구실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문미경
출장 기간	2012. 5. 14 - 5. 18		출장지	New Zealand		
출장 목적	노인관련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					
경비 부담	기본과제					
주최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면담자		내용		
복지부		Anthony Whittaker (senior consultant)		-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창출 - community services card - residential care subsidy		
건강부		Emmanuel Jo (senior analyst)		- Veteran’ s Pension - Work and Income taxes		
Auckland Central Library		Staff		- 노인지원정책보고서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2. 5. 25.

출 장 복 명 자 : 문미경 연구위원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

- 선진국에서의 노인지원정책: New Zealand-

2012. 5

I. 출장개요

1. 출장단 및 기간

- 출장자: 문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출장기간 : 2012. 5. 14(월) ~ 5. 18(금)

2. 출장목적

- 노후 경제적 안전에 관한 정부지원정책
- 노후 건강/주거에 관한 정부지원정책
- 여성정책 제반 자료 수집

3. 방문기관 (복지부/보건부)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Ministry of Health
- Auckland Central Library

II. 출장 결과

1.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 뉴질랜드는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산률이 낮고 수명이 길어져 고령화 국가에 속함.
- 1991년에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연령은 36세였고, 2066년까지는 40세로 증가하더니, 다가오는 2016년에는 46세까지 올라갈 예정임.
-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2006년에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12%였지만, 2026년

에는 20% 이상, 2040년대에는 25%이상을 차지 할 것임.

- 이러한 인구변화는 노동시장과 공공재정 그리고 경제성장 비율에 영향을 미침
- 고령인력의 고용활성화 이슈
- 고령화 인구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령노동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노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고려함.
-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음
-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령연금 수령시점에서 일을 갑자기 그만두기 보다는 일로부터 잠시 전환을 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을 더 선호함
- 근로기간 연장이나 특히 퇴직으로의 전환에 있어 이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

2. 노동과 복지의 균형

- 뉴질랜드의 복지전략과 5년간의 활동계획 (사회개발부 2008b)은 노동, 복지, 그리고 인생의 다른 부분들이 균형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권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복지임무와, 자신의 건강, 그리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과 지원으로 줄 수 있음

3. New Zealand 여성정책 동향

1. Ministry of Women's Affair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의 여성정책은 Ministry of Women's Affairs에서 담당한다.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장관을 두지 않는다. MAW는 정부 정책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재 MAW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첫째, 폭력과 갈등을 경감시키기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여성의 안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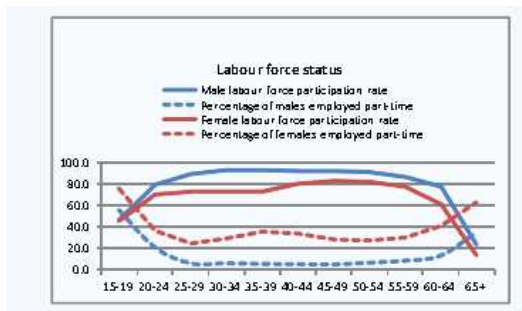
관련해서는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밖의 사법권도 폭력 예방에 관심을 증대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지만, 의미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한다. MWA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기회와 자원에 좀 더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인 독립성에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 소득 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양질의 업무 지원 연구, 여성의 일자리 증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지도부에서의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과 좀 더 대표적인 협회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영향력 있는 공적 · 사적 분야의 여성 지도자들 증가를 위한 연구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관리경력 개발을 위한 대상그룹에 적절한 정보 제공과 지원,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2. 뉴질랜드 여성 동향

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뉴질랜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2%로 OECD에서 9번째 국가로 나타남.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파트 타임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1> 노동시장 참여



여성들의 무급노동비율은 65%로 남성의 37% 대비 두 배 정도임. 많은 여성들이 무급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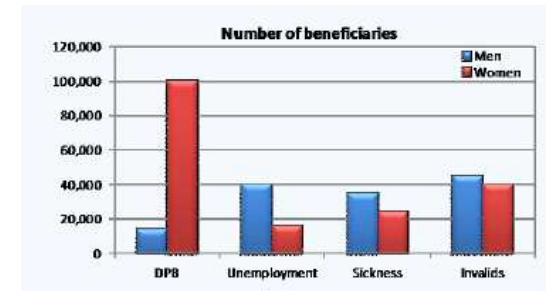
<그림 2> 무급노동 참여비율



나. 수당(육아수당/실업수당/질병수당)

주요 수당을 받는 여성은 57.8%로 나타남. 많은 여성이 육아수당(DPB)을 받고 있었으며, 실업과 질병 수당은 여성보다 남성의 수령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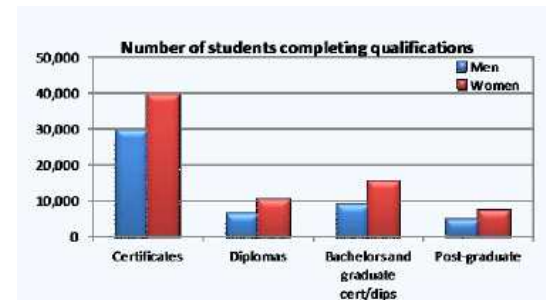
<그림 3> 수당 수령비율



다. 교육적 성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이 높았고, 학사, 석사, 대학원 학위취득에서도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모든 교육적 수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음.

<그림 4> 학업성취 비율



라. 소득

주당 699\$까지 소득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700\$ 이상부터는 남성비율 여성보다 높고, 1,030\$ 이상은 남성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5> 소득 비율



마. 정책결정직위에서의 여성참여

정부차원의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고 있음.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의 100대 기업내 이사회 여성 참여비율은 여성이 9.3%로 상당히 낮음.

<그림 5> 정책결정직위 비율



II. 출장 결과 활용

- 뉴질랜드 또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창출과 돌봄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뉴질랜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정책들은 우리나라의 노인정책관련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특히, NewZealand Superannuation, Veteran's Pension, Extra financial help you may need 등은 65세 노인들이 남은 노후를 정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생

계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원으로서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사회: 여성 노인안전(IV)'과제에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성평등이 잘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선진화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 환경이 잘 정착되어 있었음.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법적근거나 가이드라인 없이도 성평등 실현에 성공한 국가임. 이는 성 평등을 문화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여성정책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큼.